

---

# 불교철학에서의 자살에 관하여

한 자 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



## 한 자 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 ●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철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철학 석사

독일프라이부르그알베르트루트비히대학교대학원 철학 박사

동국대학교대학원 불교학 석사

동국대학교대학원 불교학 박사

### ● 경 력

계명대학교 인문과학대 철학과 조교수

계명대 인문과학대 철학과 부교수

계명대 인문과학대 철학과 교수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인문외국어문학부 철학전공 부교수

[現]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인문과학부 철학전공 교수

### ● 저 서

- 자아의 연구

- 불교의 무아론

- 명상의 철학적 기초

- 한국철학의 맥

-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 불교철학에서의 자살에 관하여

한 자 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sup>1)</sup>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가 되자 국내학계는 자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살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개인 심리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 가족 유전적 또는 의학적 측면 등 다방면에 걸쳐 자살의 원인이 분석되고 대책이 논의된다. 성장 시기 사랑과 관심의 결여,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감의 해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과잉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좌절, 취약한 유전자로 인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등, 이런 것들은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의학적 분석 너머 자살에 관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불교가 자살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자살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생명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자살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자살에 대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논한다. 그런데 자살하는 자가 자살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살은 생명의 절대 가치에 대한 회의 내지 부정에서 비롯된다. 생명은 왜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가? 생명의 존엄성은 왜 절대적 가치인가?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모른다는 것이다. 생명 자체가 존귀한 것이라면 인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텐데, 인간의 부귀영화를 위해 못생명을 멋대로 처리하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생명 존중이 아니라 생명 경시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오직 인간의 생명만 존귀하다면, 그럼 그때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인가? 그렇다면 이성능력이 손상되거나 이성적 삶의 방식이 어려워질 경우 생명을 포기해도 되는가? 이처럼 생명의 절대 존엄성을 인간으로 국한한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디에서 성립하는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답을 알지 못한다. 인간 생명이 어째서 절대 가치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삶의 고통 때문에 자살한다. 삶이 고통이기에 고통의 삶을 피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은 불교가 잘 알고 있다. 불교는 인생을 고통의 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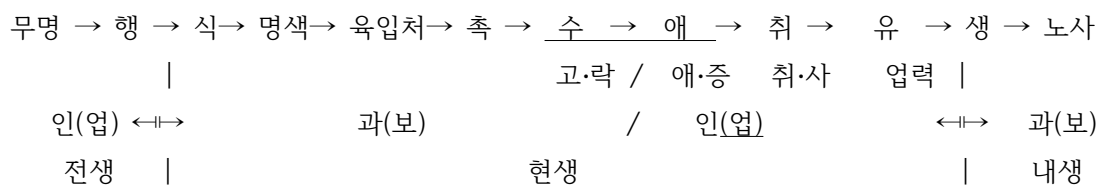
1) 여기서는 자살을 논하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계에 의거한 수명 연장을 거부하는 <존엄사 문제>라든가 숭고한 대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의 문제> 등은 논외로 한다.



우리 일상의 표층의식에는 업력이나 중음신이 감지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들(A)은 오온만이 실재하는 것이며 오온이 멸하는 죽음은 곧 모든 것의 끝을 뜻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의 가시적인 신·구·의 삼업이 남긴 비가시적인 업력은 마치 소리가 일으킨 에너지파동처럼 또는 그렇게 축적된 정보처럼 에너지 덩어리로 뭉쳐 있다가 반드시 그 결과(보)로 다시 새로운 오온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B)은 표층의식 너머 사후에 존속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을 고통스런 현재의 삶과 무관하며 현생의 고통을 다 털어버린 영혼일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 남아 있는 업력이 일으키는 그 다음 생은 현생의 업의 결과이므로 선업락과 악업고과의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 전체 생애의 업에다 자살하는 순간 일어났던 살인의 嗔心까지 더해지면 그 보로서의 다음 생은 현생의 고보다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고통스런 이 생을 내 의지대로 끝맺고서 저 세상에 행복하게 다시 태어나리라는 기대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지은 업이 업력을 통해 내생의 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생의 업과 내생의 보의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지연기이다.



전생의 업(행)이 남긴 업력 덩어리 아뢰야식(식)은 수정란과 결합하여 새로운 오온(명색)을 형성하고 육근(육입처)이 완성되면 태 밖으로 나와서 세상 만물과 접촉(촉)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느낌(수)이 일어나는데 느낌은 락수·고수·사수로 구분된다. 그런데 우리 일반 범부들은 락수를 좋아하고 고수를 싫어하는 애증(애)을 일으키고, 또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 하는 취사(취)의 업을 짓는다. 이러한 애와 취의 업이 업력(유)을 남겨 그것이 다음 생(생/노사)을 낳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그리고 다시 내생으로 끊임없이 업과 보의 사슬에 매여 윤회하며 생사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 3. 불교의 고락관

생사윤회를 반복하면 고통스러운 수밖에 없기에 불교는 업을 짓지 않아 업력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12지연기에 따라 윤회하는 중생이 어떻게 그 연기의 순환고리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어디에서 그 순환고리를 끊고 그 순환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수에서 애·취로 넘어가는 그 자리에 멈춰섬으로써만 가능하다. 수는 과거 업의 결과로서 현재 주어지는 보이므로 현재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수에 대한 반응이다. 일반 범부는 락수를 느끼면 탐심이 일어 미친듯 좋아하고 고수를 느끼면 진심이 일어 미친듯 화를 내며, 그렇게 애·증과 취·사의 업을 짓게 된다. 탐심과 진심에 이끌린 새로운 업지음이 우리를 계속 순환고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이 탐심과 진심은 비고비락의捨受에서 어리석음인 치심에 머물러 있기에 발생한다. 범부의 마음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다. 반면 수행자는 탐·진에 이끌려 애증과 취사의 업을 짓지 않는데, 이는 어리석은 치심, 무명을 벗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무엇을 아는 것일까? 무엇을 알기에 무명이 아닌 명이 되어서, 치심이 극복되어서, 고락의 느낌이 일어나도 탐·진에 이끌리지 않아 애증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인가? 緣起를 알기 때문이다.

고락의 연기를 안다는 것은 고락의 사회성(無我)을 아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고락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연기한 것이기에 실체가 없이 우리 사이 허공을 떠도는 공통의 느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삶의 고통 때문에 자살한다.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면 화가 나는데, 그 고통이 내 탓이라고 여겨지면 나에게 화가 나고, 남 탓이라고 여겨지면 남에게 화가 날 것이다. 나에게 화가 나면 우울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자살하기도 하고(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징벌함), 남에게 화가 나면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기도 할 것이다(억울함을 폭로하여 남에게 복수함). 고락의 연기를 안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고통이 나의 내면에서 단독으로 일어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나만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와 너, 가정과 이웃, 국가와 세계가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감정이라는 것, 共業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고통의 衆緣, 고통의 더 큰 맥락을 아는 것이다. 나의 우울과 좌절, 분노와 절망이 나만의 탓도 아니고 남만의 탓도 아니며, 우리 전체의 탓이라는 것, 그렇게 누구나 다 함께 피해자이고 다 함께 공범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현재 내가 느끼는 고통은 전생에 내가 大悲의 보살심으로 중생의 고통을 대속하리라는 큰 願을 세웠기 때문인지도 모르니 내게 화낼 것도 없고, 현재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는 나의 성불을 위해 반면교사가 되기로 자청한 보살인지도 모르니 그에게 화낼 것도 없다. 중연의 얽힘을 내가 단지 모를 뿐이니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시시비비할 것도 없는 것이다.

또한 고락의 연기를 안다는 것은 고락의 무상성을 아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고락이 실체가 없어 너와 나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아는 것이다. 오늘 짙은 먹구름이 나를 뒤덮어도 내일 바람이 불면 구름은 훌연히 흩어지고, 오늘 내가 좇은 부귀영화가 내일 깨고 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찰나 생멸하여 고통도 이미 지나가고 없는데, 나 스스로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아 그 고통의 기억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연기를 아는 것은 제행무상을 여실지견하여 기억의 늪, 감정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아가 고락의 연기를 안다는 것은 고락의 상대성을 아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내가 추구하는 쾌락과 상대적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은 고통과 한 짝을 이루므로 쾌락을 추구하는 한 인간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락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待對관계에 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고통과 락은 언제라도 다시 락과 고통으로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고통은 즐거움을 준비하고, 즐거움은 다시 고통을 준비한다. 작은 즐거움 뒤에 작은 고통이 따르고, 큰 고통 뒤에 큰 즐거움이 따른다. 연기를 아는 것은 고락의 상대성을 알아 치우침 없는 中道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기를 알아 어리석은 치심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치심에 바탕을 둔 탐심과 진심에 이끌려 업을 짓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업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탐진치를 극복해서 업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탐진치를 여원 삶,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4. 불교의 인간관

자살이 반드시 어리석음으로 인한 화나는 마음, 嗔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고락의 사회성과 무상성과 상대성을 잘 알아도, 무아와 연기, 제행무상의 원리를 잘 알아도, 그렇게 고락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나에게 분노하는 것도 남에게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분노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의 고통을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의 순환고리를 빠져나온다 한들 거기 무슨 삶의 낙이 있겠는가?

그러나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離苦得樂’인데 이를 더 정확히 말하면 ‘離一切苦 得究竟樂’이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고통과 락은 苦苦와 壞苦로서 결국 苦에 포함되므로 ‘일체개고’를 설하지만, 불교는 그러한 상대적 고통을 넘어선 궁극의 즐거움, 구경락이 존재하며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허무한 생사윤회의 반복이 그래도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바탕에 궁극의 경지, 열반적정의 구경락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추구

하는 열반적정의 구경락은 탐·진의 번뇌장과 무명의 소지장을 극복한 마음이 느끼는 해방과 자유의 의식, 아집과 법집을 벗고 자타분별 주객분별을 벗어 일체와 하나로 호흡하고 하나로 공감하는 소통의 기쁨일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탐진치를 벗은 마음이 허무와 적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체와 하나 되는 구경락에 이른다고 말한다. 탐진치를 벗은 청정한 마음, 집착 분별을 벗은 하나의 마음, 일심의 자기자각이 환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청정한 일심은 탐진치를 멸하고 윤회를 멈추어야 비로소 얻게 되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탐진치의 마음으로 알아 볼 때 그 시선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현재적 마음이다. 무명을 무명으로 알아보는 것은 그 마음 바탕이 무명 너머의 명(本覺)이기 때문이고, 탐·진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번뇌를 여인 청정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생사윤회의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 자체는 본래 생사윤회를 벗어난 자성청정심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탐진치의 번뇌를 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 그 번뇌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생사가 괴로운 것은 우리가 생사 바깥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결코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절대적 가치, 구경의 가치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진치의 마음과 청정한 본각의 마음이 어떻게 함께 한단 말인가?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심층구조로 이해한다. 우리 시선에 대상으로 붙잡히는 것들은 모두 심층 마음이 만들어낸 표층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감각되고 사유되는 표층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여기며 그 현상의 무상·고·무아·부정(번뇌)에 좌절하지만, 그렇게 좌절하는 마음 심층에 바로 우리가 찾는 常·樂·我·淨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가? 그 보물이 바로 보물을 찾는 마음 자체이기 때문이다. 술래가 남만 찾고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듯 그렇게 마음 바깥으로만 향한 마음은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심층의 마음을 불교는 본심, 진심, 진여심, 일심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표층 의식에서 각자 자신의 의식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지만, 표층의식은 인연 따라 형성되는 연기소생의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표층에서는 각각 다른 각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 심층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존재한다. 심층의 마음 바탕이 자성청정한 일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 무명으로 인해 표층의 의식만을 나로 여기며 탐·진의 번뇌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무명에서 명으로의 전환은 스스로 자신의 심층 마음을 자각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나의 삶을 고통이나 허무로 의식할 때, 그렇게 의식하는 나 자신은 이미 그 고통과 허무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달마를 만나고자 인생을 건 혜가에게 달마가 물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마음이 불안하다. 불안을 없애 달라.” “그럼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불안을 없애주겠다.” 그러자 불안

한 마음을 찾던 혜가는 깨달았다. 그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 5. 마치는 말

내가 이 순간 왜 죽지 않고 삶을 택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살 가능자이다. 실제 자살자가 처한 그 자리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내가 자살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현대는 인간을 탐심과 진심의 덩어리로 간주하며 우리는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다. 입으로는 생명이 고귀하다고 말하지만 못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뿐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잃어버렸다. 훗날 돌이켜보면 우리는 핵발전소로써 집단 자살을 준비하고 핵폭탄으로써 집단 타살을 계획한, 그렇게 자기멸종을 재촉한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돌연변이로 밝혀질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떠든다. 무명이 너무 짙어 그것이 무명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마음에 보여진 물리적 대상 세계만이 실재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대의 과학주의적 사고, 그래서 마음을 기어이 보여진 물리적 대상인 두뇌신경세포의 활동 산물로 설명하는 과학, 그리고 그런 과학만을 진리로 믿고 사는 우리들, 과연 어디에서 탐·진·번뇌 너머의 심층 마음, 구경락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신 안의 본래 청정심, 만물과 하나로 소통하고 하나로 공감하는 일심의 공능을 예감할 수 있겠는가? 중생심이 곧 진여심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각각으로 분리된 표층의 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 마음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어찌 실감할 수 있겠는가? 相만을 좇느라 性を 망각하고, 用만을 추구하느라 體를 부정하는 오늘날,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현상 너머에서 온다는 것, 우리가 본래 현상 너머의 존재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감각이 되살아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생각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나 다 자살가능자이다. 무명을 밝히는 심층마음의 지혜를 회복하지 않는 한, 누구나 아직 덜 괴롭기 때문에 살고 있을 뿐 고통이 심해지면 왜 굳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층의식 차원에서는 그 답을 알아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